

제 33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품

永同길쌈노래



때 : 1992. 9. 23~25

곳 : 경상북도 구미시

충 청 북 도

永同 길쌈노래 해설

영동 길쌈노래는 충청북도의 남부에 자리한 영동지방에서 옛날에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면서 부르던 부녀요이다.

길쌈은 옛날에 목화를 길러 만든 솜으로 실을 자아 무명을 만드는 일로 길쌈의 과정은 목화씨를 빼는 씨아질, 목화를 펴서 솜을 만드는 활질, 솜고치로 실을 만드는 물래질, 베틀에 걸 실을 도투마리에 거는 배매기, 실로 무명을 짜는 베짜기로 진행되는데 이 때 부녀자들이 피로를 잊기 위하여 길쌈노래를 불렀으며 그 내용은 아낙네들의 시름과 애환을 노래한 까닭에 길쌈노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녀요(婦女謠)이면서 내방문학(内房文學)이기도 하다.

충북의 영동지방은 목화가 잘 되어 옛날에는 길쌈이 성행하였으며 특히 “길쌈두레”를 만들어 마을에서 공동으로 길쌈을 하였기 때문에 길쌈노래가 발달하여 오늘날 다른 지역에서 채집이 어려운 길쌈노래를 쉽게 채집할 수 있다.

영동지방의 길쌈노래는 씨아질노래, 활질노래, 물래질노래, 배매기노래, 베틀노래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락은 두 장단을 묶어서 한 귀를 이루나 귀의 첫음은 대개 길게 내기 때문에 높은 음으로 시작하고 두번째 장단에서 풀어주는 것이 특징이나 길쌈의 종류와 손놀림에 따라 가락은 느리다가 빨라지기도 하며 여럿이 길쌈을 할 때는 메기는 소리인 사설과 받는 소리의 후렴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또한 길쌈을 하다가 밤참으로 개떡이나 국수를 먹으면서 개떡노래나 시집살이노래를 곁드려 흥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 출연하는 영동 길쌈노래는 단순히 민요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쌈을 하면서 민요를 부르기 때문에 길쌈의 현장성과 길쌈노래의 문학과 음악성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민요의 출연으로 볼 수 있다.



씨아질



활질



씨날질



물레질

물 레 질 노 래

물레로다
하늘나라
어떻게나
두개기둥
여덟살을
천지조화
이물레가

돌려보세
들어보세
삼년묵은
오롱오롱

병이났네
어디어디
무슨병이
이리떨고
병을몰라
굿을몰라
범같은
여우같은
어린자식
이리저리

늑대같은
젊은년이
낭군낭군
이물레가
이내몸이
괴머리가
참깨지름
오롱오롱

부지런히
깊은잠에

물레로다
물레씨가
만들었나
세우고
골랐다네
부렸다네
제일이라

돌려보세
들어보세
메밀밭에
우는구나

병이났네
병이났나
나섯길래
저리떠나
못고치고
못고치고
시어버지
시누이년
젓달라고
돌러봐도

시어머니
잠이 많아
우리낭군
병이나서
아플때는
병이나면
떨어지니
돌아가네

물레жат고
빠져보세

이물레가
이물레를
음양에서
팔괘에서
이리저리
이런물레

오롱오롱
물레소리
왕벌때

이물레가
괴머리에
빙빙돌던
의원한테
무당불러
아고답답
물떠오라
댕기찾아
칭얼칭얼
병을아나

물레놓고
일손놓고
어디갔다
잠자기는
당신손이
참깨물이
천연스레

낭군품에

웬물렌고
만들었네
본을받아
본을받아
엮으면서
앓혔으니

돌려보세
들어보세
우는소리

병이났네
병이났네
괴머리가
물어봐도
물어봐도
못살겠네
소리치고
달라하고
매달리고
약을아나

잔다하네
잔다하네
이제와요
틀렸다고
약이지만
약이라네
돌라가네

기어들어

베틀 노래

영동읍 설계리
서정숙 여 70세

하늘위에 이산에 다리는 숫아놓고 「후렴」 덩더리쿵	놀던선녀 저산에 네다리요 뒷다리랑 곶은나무	지하나땅에 낭컬비여 선녀에 나차놓고 정저리쿵	내려서니 걸고나보니 다리는	옥남간이 베틀일세 단두다리	비였구나 베틀에 앞다리랑
안즐깨라 하신듯이 안개	안즌양은 부티라고 돌렸구나 「후렴」	우리나라 나두룬양은	상감님이 만첩산중	용상에 들어나가서	좌개나 허리나
말코라고 복과나	갱긴양은 갱격도다 「후렴」	삼대나	독자	외아들이	명과나
양금에 서창에	진금에 가서도	건느네 걸렸구나 「후렴」	체활장은	동해나동창	무지개가
바디집이라	치는 양은	만첩산중	들어나 가서	나무찍는	소리로다 「후렴」
북이라고 살품에	드나드는 양은 드나드는구나 「후렴」	갈대말에	금비들키	알나놓고	살품에
잉에대는 억만군사를	삼형제요 거느리고	눈림대는 술렁에	독신이라 술렁에	잉에대는 넘어간다 「후렴」	삼형제네
세모지기 우수나	비기미는 없이	홍무년에나 안жат구나 「후렴」	잔칠런가	백포장을	돌러치고
용두머리라 짜 차즈려	우는양은 가느라고	새벽바람 끼우룩	찬바람에 끼우룩	짜을이른 하는구나 「후렴」	외기러기
베틀신대	구분나무	헌집씨기	목을 매고	큰애기앞만	바라보네 「후렴」
뱃대기라	지는양은	이두나지고	저두나지네 「후렴」		
도투마리라	지는양은	오뉴월이라	쏘낙비에	천둥치는	소리로다 「후렴」
베를 한필	다 찢도다	하루나짜고	이틀을짜니	베를 한필	다 찢도다

용산면 신항리
김소용(여 82세)

월궁에 지하나 땅에 옥난간이 이산저산 네다리요	노던선녀 내려와보니 비엿도다 야산중에 요네다리	상제께 할일이 썩들어가서 단두다리	득죄하니 전혀없어 낭클베어	인간으로 옥난간을 걸고나보니	내쳤도다 둘러보니 베틀다리
앞다릴랑 옥난간에 그위에 부태라고 말코라고 감긴듯이	숫아놓고 드려놓고 얹은양은 두른양은 쟁긴양은	뒤다릴랑 구름잡아 우리나라 만척산중 삼대나 독대나 외동아들	나취놓고 잉에걸고 사또님네 썩들어가서	다리세를 안즐께를 용상이나 허리왕제 명대나 독대나	지른후에 도라놓고 좌지한듯 두른듯이
앙곰당곰 알을낳고 사또부인 끈을달아 낙싯댄가 잔치런가 내려갔다 벗부르는	채할정에 알품들로 삼수백이나 올라갔다 그로강에 배포장을 용두머리 객이로다	북이라고 드나드는듯이 신은듯이 내려갔다 띄워놓고 둘러치고 우는소리	드나드는 양은 바디집이나 삼형제라 호로애비 삼형제라 사침대에 만척산중	까토리가 신은양은 잉에대는 눌림대는 비기미는 목을달아 외기러기	양대밭에 우리나라 눈썹놀이 강태공의 홍문연어 올라갔다 벗을읽고
도투마리 뱃지거나 이리도지고	지는양은 지는양은 저리도젓네	오뉴월 우리나라	소낙비에 사또님네	벼락이나 쭈가치나	치는듯이 지는듯이
이리저리 툭을대어 앞넷물에 무슨옷을	하다보니 이리저리 비벼씻고 말랐던가	분조대필을 제쳐놓고 뒷넷물에 과거가신	다짚고나 분조대필 행귀씻어 서방님에	금가새를 손에 들고 푸세다리미 진념도포를	내어들고 나가 곰게하여 말랐도다
청동화로 살곰살짝 오동나무 오신다고	불을담아 도포지어 반다지에 노문있네	인두질러 은다리미 살곰살짝	옆에놓고 내어서 넣고나니	은침동침 살곰살짝 과거가신	내어들고 다리어서 서방님이
대분밖에 삼십명 아이고답답 여보시요 목이말라 한행상에	나서보니 장군들이 내신세야 서방님은 죽었거든 가게되네	일성대를 영전대가 이팔청춘 배가곱파 물을줄게 어이없고	기다렸는데 날려오니 젊은몸이 죽었거든 일어나소 가이없네	영전대가 어이없고 남편없이 밥을줄게 애걸복걸 아이고답답	웬일이요 가이없네 어이살가 일어나소 하다보니 내신세야

출 연 자

〈설 계 리〉

서 정 숙(여. 70세)
 유 관 분(여. 58세)
 박 감 순(여. 58세)
 박 영 희(여. 67세)
 방 숙 녀(여. 40세)
 손 경 자(여. 40세)
 김 혜 숙(여. 36세)
 최 순 실(여. 39세)
 배 태 식(여. 69세)
 이 태 순(여. 38세)

〈신 항 리〉

김 소 용(여. 82세)
 황 대 연(여. 67세)
 박 용 순(여. 66세)
 고 청 자(여. 61세)
 정 영 순(여. 54세)
 김 정 열(여. 53세)
 김 정 용(여. 49세)
 김 도 원(여. 43세)
 문 재 숙(여. 39세)
 이 영 희(여. 28세)

진 행

조 성 찬 서 병 종 이 종 진 배 감 식

임 원

단 장	이 원	종	(충청북도지사)
부단장	손 문	주	(영동군수)
총괄 총무 주무	정 종	원	(영동문화원장)
	김 태	우	(영동문화공보실장)
	김 양	장 열	(영동문화공보계장)
	이 규	철	(문화예술담당)
고 증 지 도	김 영	진	(청주대학교교수)
	김 임	동 철	(충북대학교교수)